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정치적 반대와 정부의 대응

김태연 ■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반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전개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1세대 정치적 반대는 소비에트 말기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인텔리 주도로 조직되어 민족·환경 이슈를 제기한 사회운동이었고,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이에 대해 억압과 포섭으로 대응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는 엘리트가 결성한 이익 추구 정당 형태의 2세대 정치적 반대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대응은 강력한 억압과 담론 공세였다. 2010년대부터는 대중의 항의시위라는 새로운 형태의 3세대 정치적 반대가 일어나고,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전처럼 억압과 담론 공세로 대응하지만, 달라진 국가-사회관계의 조건에서 채택된 이전과 같은 방식의 대응은 체제 안정화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주제어: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 정치적 반대, 국가-사회관계, 국가의 억압

I. 서 론

권위주의 체제의 최소 정의는, “행정부가 비민주적 방법, 즉 직접적이고 비교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이외의 방법을 통해 권력을 획득했거나, 혹은 행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권력을 획득했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선거 경쟁이 제한되도록 규칙을 바꾼” 정권이라고 논의된다(Frantz 2018, 6). 이러한 기본적인 혹은 고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굳이 다양한 민주화 지수나 평가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카자흐스탄의 정치체제는 이미 독립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E-mail: antiwar99@hanmail.net)

까지 권위주의 체제이다. 가령 1989년 6월부터 카자흐공화국(Kazakh SSR) 최고 지도자직을 맡고 있던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는 1991년 12월 1일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직선제 대선에 단독 출마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이는 경찰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일한 야권 지도자의 지지자 서명을 강탈하여 그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만든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진 일이었다(Cummings 2005, 22; Hiro 2009, 247). 이렇듯 카자흐스탄에서 선거는 처음부터 권위주의 체제 개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치러진 6차례의 대선 또한 매번 예정된 시기보다 앞당겨져 조기 대선으로 실시되는 등¹⁾ 카자흐스탄에서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적 경쟁의 장(場)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확인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²⁾

권위주의 체제의 지상과제는 자기 재생산의 조건으로서 체제에 도전 혹은 반대하는 세력·운동에 대해 내구성 혹은 탄력성을 확보·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현대의 권위주의 체제는 바로 그 자기 재생산의 정당화를 위해 비록 형식적으로라도 선거 절차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외관을 꾸미거나 갖추려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주의적 치장은 적절한 구조적 조건과 행위자 요인의 결합에 따라 체제에 대한 도전이나 반대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활용될 수 있다. 즉 정치적 반대는 권위주의 체제 그 자체에 의해 동기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 체제는 자신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 요인을 관리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반대세력·운동의 존재에 의존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체제와 반대는 함께 상호구성적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강조되기도 한다(Isaacs 2022, 5). 이 글은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와 정치적 반대의 상호성 및 이에 따른 동태성에 착목하여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에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형성되고 변화한 과정과 그 특징,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직된 정치적 반대가 제기한 도전에 직면하여 정부가 취한 대응이 변화하거나 연속된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때 이 글은, “다양한 행동 방식을 통해 조직된 행위자에 의해 공적 영역에

-
- 1) 어렵지 않게 추론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반복적으로 조기 대선을 실시한 주요 목적은, 공식적인 이유나 구실과 별개로 야권 후보가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선거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고 야권 후보와의 실질적인 경쟁은 무의미화하는 것이었다.
 - 2) 나자르바예프의 이러한 방식의 중앙집권화 조치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제도적 조작 (institutional manipulation)’이라고 규정된 바 있다(Cummings 2002, 64).

서 표현된, 정부나 그 정책, 정치 엘리트, 혹은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이견”이라는 정치적 반대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정의에(Brack & Weinblum 2011, 74) 기반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글에서 정치적 반대는 다양한 방식과 정도로 정부의 행동이나 정책, 정부의 통치 방식이나 통치 그 자체, 정치체제 등에 대해 문제 혹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부 혹은 체제와 다른 의제나 이해관계를 내세워 실현하려는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처럼 이 글이 개념적 엄밀성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는 넓은 의미의 정치적 반대 개념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 글이 살펴볼 정치적 반대가 형성되어 활동한 구조적·외부적 조건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정치체제가 다름 아닌 권위주의 체제라는 점과 관련된다. 반대와 경쟁의 정치가 전개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인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적 반대의 목소리가 흔히 제도적 공간과 형태 이외의 비제도적 장소에서 비제도적 형태로 제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정치적 반대에 관한 연구에서는 반대 행위의 형태나 방식, 반대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Isaacs 2022, 26-29).

이 글은 카자흐스탄에서 정치적 반대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전개된 동태적 흐름과 특징을 밝히려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통시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구성될 것이다. 즉 이 글은 카자흐스탄의 정치적 반대를 그 구성과 성격과 형태에 따라 소비에트 말기부터 1990년대 초에 등장한 1세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 출현한 2세대, 2010년대를 전후하여 대두되기 시작한 3세대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정치적 반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정치적 반대의 각 세대에 대해 정부가 취한 태도와 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사실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은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 중에서 정치·경제체제전환 과정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시켰고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화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정치경제적 안정 또한 이루었다고 평가 받은 나라였기 때문에, 2022년 1월 알마티(Almaty)³⁾ 등지에서 대규모 유혈사태를 수반한 항의시위가 발발했을 때 국제사회는 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해 충격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시적 접근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의 정치적 반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추적·고찰하는 작업은, 외적·현상적으로는 성공적 혹은 안정적으로 보였던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3)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에 위치한 알마티는 1929-1997년 소비에트 및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의 수도였고, 지금도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이자 문화와 금융의 중심지로서 중요성을 갖는 도시이다.

정치적 반대와 정부의 대응이라는 치열하고 역동적인 내적 상호작용과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체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정치적 반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거나 혹은 반대로 잠재적 체제 불안정 요인을 악화시키기도 했음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카자흐스탄에서의 정치적 반대 및 정부의 대응을 개별적·양자적 차원과 관점에서 분석함과 동시에 정치구조·체제의 외부 혹은 아래에 위치한 사회 혹은 그 기층 대중의 인식·태도·행동이 정치적 반대 및 정부의 대응과 가졌던 관계 혹은 이에 미친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가 사회 혹은 대중의 의사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정치의 중심은 지도자, 엘리트, 대중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Frantz 2018, 21)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정치적 반대와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회 혹은 대중의 역할은 면밀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글의 의의는,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정치적 반대 그 자체를 다룬 선행연구가 충분치 않은 학문적 풍토에서(Brack & Weinblum 2011, 69; Isaacs 2022, 4-5)⁴⁾ 이 글이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정치적 반대와 정부의 대응에 관한 사례연구를 제공함으로써 위에서 언급된 권위주의 체제와 정치적 반대의 상호적·동태적 관계와 작용에 관한 일반론의 정교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 글은,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에 관한 국내 기존연구가 나타난 체제·국가·정부·정책·엘리트 편향성에서 벗어나 국내 선행연구에서 온당한 주목을 받지 못한 ‘사회’의 행위성에 시선을 던져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카자흐스탄, 나아가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의 정치과정·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1세대 정치적 반대와 정부의 대응

1. 1세대 정치적 반대: 인텔리의 의제 중심 운동

1985년 3월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집권한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정책을

4) 즉 “비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대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아는 것은 확실히 중요할 것”이라는 오래된 명제가(Dahl 1966, xvii)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실행하면서 소련(USSR) 사회 전역에 자유화의 바람이 불자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다른 연방공화국(SSR)들에서처럼 카자흐공화국에서도 민족주의 운동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는데, 1988년 발족된 젤톡산(Zheltoqsan, '12월'), 1990년 4월 설립된 알라쉬(Alash),⁵⁾ 1990년 7월 창설된 아자트(Azat, '자유')가 바로 그들이었다. 1989년 2월에는 저명한 작가이자 정치인이던 술레이메노프(Olzhaz Suleimenov)가 반핵 운동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의⁶⁾ 결성을 주도하여 대중집회를 개최하는 등 직접행동에 나섰고, 1992년 9월에는 슬라브인, 주로 러시아인의 민족적 권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라드(Lad, '조화')가 출범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소비에트 말기에서 포스트소비에트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카자흐스탄에서 태동하여 활동한 이들 민족·환경 운동단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주로 인텔리로 구성되어있고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이다(Junisbai & Junisbai 2005, 377). 이들 운동은, 그 출현과 활동 자체가 과거 소련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면서 다양한 정도로 기존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도 나자르바예프 정부 혹은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난 정치적 반대의 1세대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치적 반대의 맹아기였던 이 시기는, 나자르바예프가 카자흐스탄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중되고 있던 풀뿌리 운동의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기에 자신의 공화국에서도 사회정치적 자유화가 진행되는 것을 허용한 시기였다(Hiro 2009, 244). 사회운동론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카자흐스탄의 1세대 정치적 반대는 국가와 지역 차원 모두에서 정치체제의 개방과 억압의 약화라는 사회운동의 출현에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를⁷⁾ 배경으로 하여 대두될 수 있었던 것이다.

5) 비등록 정당 알라쉬의 당명은 카자흐인의 신화적 조상의 이름, 1917-1920년 카자흐인의 자치를 주장한 정당의 명칭, 이 정당의 주도로 수립되어 알라쉬 오르다(Alash Orda)라고도 불렀던 자치정부의 명칭을 따서 지어진 것이다.

6) 이 운동의 명칭에 '네바다'가 쓰인 이유는 미국 네바다 핵 실험장 반대 운동단체들과의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서였고, 실제로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는 출범 초기부터 이들과 협력하며 활동했다(Schatz 1999, 146-147).

7) 정치적 기회구조란 사회운동이 그 안에 위치하면서 그 유리한 혹은 불리한 영향을 받는 정치적 구조·환경·맥락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가장 널리 합의된 정치적 기회구조로는 첫째, 정치체제의 상대적 개방성 혹은 폐쇄성, 둘째, 엘리트 연합의 안정성 혹은 불안정성, 셋째, 엘리트 동맹의 존재 혹은 부재, 넷째, 국가의 억압 능력과 성향이 있다(McAdam 1996, 27).

이들 카자흐스탄의 1세대 정치적 반대 가운데 젤톡산 운동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1986년 12월 알마티 항의시위⁸⁾ 참여자들의 사면과 명예회복을 주로 주장했는데, 이 운동의 영향으로 1990년 카자흐스탄 의회는 진상 조사 위원회를 임명하여 1986년 시위가 카자흐 ‘민족주의적인’ 것도, ‘법과 질서에 반한’ 것도 아니었다는 당시로서는 ‘정치적 폭탄선언(political bombshell)’과도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Hiro 2009, 244-245; Olcott 1997, 210). 서론에서 1991년 12월 카자흐스탄의 첫 직선제 대선에 출마하여 나자르바예프와 경쟁하려 했으나 그 시도가 무산된 한 야권 지도자가 언급되었는데, 그가 바로 소비에트 반체제인사이자 정치범이었다가 1986년 젤톡산 사태에 참여했으며 1991년에는 젤톡산 운동을 이끌고 있던 코자흐메토프(Khasen Kozhakhmetov)였다(Арқулыбы 2009).⁹⁾

카자흐공화국 전직 외무부 장관과 역사가가 설립한 아자트 운동은 이념적으로는 카자흐 민족주의와 범투르크주의를 표방했고 카자흐스탄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나자르바예프의 정책을 친러적인 것으로 비판한 반대세력이었다(Hiro 2009, 245; Laruelle 2021, 172; Olcott 1997, 210). 소련이 해체되어 카자흐스탄의 독립이라는 아자트의 핵심적인 요구가 충족되면서 그 세력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카자흐스탄이 사실상 단일민족국가가 될 것을 요구하는 입장에 가까웠던 아자트는 1990년대 말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어의 사용 범위가 확대될 것을 주장하는 활동을 이어갔다(Laruelle 2021, 172; Olcott 1997, 214; Olcott 2002, 181). 그렇지만 이는 독립 무렵 15개 구소련공화국 중에서 러시아인 인구 비중이 가장 컸던 카자흐스탄에서 현실화되기 쉽지 않은 노선이었다.¹⁰⁾

8) 1986년 12월 16일 카자흐인으로서는 18년 동안 카자흐스탄공산당 제1서기직을 수행하던 쿠나예프(Dinmukhamed Kunayev)가 해임되고, 다음날 카자흐스탄과 무관하게 정치적 경력을 쌓은 에스닉(ethnic) 러시아인 콜빈(Gennady Kolbin)이 그 자리에 임명되자 주로 카자흐인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년층이 당시 카자흐스탄의 수도였던 알마티 도심에서 중앙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당국이 이를 무력 진압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비에트 말기까지 소위 이 젤톡산 사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국제주의를 표방한 소비에트 국가와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되던 (카자흐) 민족주의의 발현이라는 비난이었다.

9) 젤톡산 운동은 1986년 12월 알마티 사태의 재검토 주장 외에도 해외 거주 카자흐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 이슬람의 정치적·이념적 위상 제고, 토지·자원 사유화 반대 등 다양한 요구를 제기하며 수차례에 걸쳐 시위, 단식농성, 건물 점거 등을 조직했고, 코자흐메토프는 핵무기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카자흐스탄을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핵 폐기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Laruelle 2021, 171; Olcott 1997, 210-211).

1986년 젤투산 사태에 참여했고 시인이자 반체제인사였던 아타벡(Aron Atabek)이 조직한 알라쉬는 이슬람, 범투르크주의, 민주주의 이념을 내세우면서 CIS 지역 투르크 민족들로 구성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지향했고, 정부와 러시아인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러시아 식민정책’에 저항하는 반란을 호소했으며, 그 몇몇 활동가들은 비민족주의적이고 친정부적으로 보인 카자흐스탄 이슬람 최고 지도자 무프티(mufti)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과격한 행동을 벌이기까지 하였다(Hiro 2009, 245, 249-250; Laruelle 2021, 171; Olcott 1997, 211; Sorbello 2021). 적어도 1995년 3월 의회 해산¹¹⁾ 이전까지는 카자흐스탄에 정치적 다원성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Dave 2007, 102; Olcott 1997, 222),¹²⁾ 아래에서 논의될 것처럼, 이러한 급진적인 주장과 극렬한 행동 양상으로 인해

-
- 10) 당시 러시아인 절대 수가 가장 많은 구소련공화국은 우크라이나였지만, 러시아인 인구 비중이 가장 큰 공화국은 카자흐스탄이었다(Peyrouse 2007, 482).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민족 구성 및 언어 현실과 관련하여 러시아어가 국어 카자흐어와 ‘공식적으로 동등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1995년 헌법 규정(Dave 2007, 101) 수차례 개헌을 거친 현행 헌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언어에 관한 카자흐 민족주의적 요구가 온전히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사용자의 비중은 독립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에서 러시아인의 비율은 15.5%, 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의 비율은 19.9%이다(Бюро национа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и 2022, 11, 29). 2021년 인구조사에서 러시아어 구사자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2009년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에서 러시아어 구사자 비율은 94.4%로 카자흐어 구사자 비율(74%)을 크게 능가했다(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2010, 258).
- 11) 1995년 3월 헌법재판소가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1994년 3월 총선에서 알마티의 한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었다고 판단하면서 총선 전체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의회 해산 결정은, 첫 총선으로 구성된 해당 의회가 나자르바예프의 ‘거수기(rubber stamp)’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독립성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나자르바예프에 의해 기획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짙다. 의회가 부재한 가운데 나자르바예프는 전권을 부여받아 1995년 4월과 8월 두 차례나 국민투표를 시행하여 2000년 12월까지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헌법을 채택하는데, 특히 ‘나자르바예프 헌법’이라고도 불린 신헌법의 채택은 카자흐스탄 정치체제의 ‘명백한 권위주의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된다(Cummings 1999, 87-90; Olcott 1997, 221-222, 226-227; Peyrouse 2007, 483).
- 12) 혹은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의 초기 3년은, 나자르바예프가 경제 자유화를 진행시키고 명확한 권력 분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대 헌법 준비를 위해 개혁 정부를 구성하는 등 적어도 민주주의로의 이행 개념이 시도된 짧은 시기였다고 논의된다(Ibadildin & Pisareva 2020, 104-105). 그렇지만 정치적 다원성이 존재했다고 해서 이것이 이 시기 카자흐스탄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가 아니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원적 요소는 권위주의 체제의 독특한 특징인데, 이때 강조되어야 할 점은,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적 다원성이란 ‘제한된’ 다원성이라는 점이다(Linz 2000, 161).

알라쉬의 지도자는 초기부터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억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슬레이메노프가 주도한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는, 소비에트 시기 동안 카자흐스탄 영토에서 실행된 핵 실험이 생태·환경·보건에 미친 심각한 영향과 피해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고 결국 1991년 8월 나자르바예프의 세미팔라틴스크(Semipalatinsk) 핵 실험장¹³⁾ 폐쇄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하였다(Dave 2007, 91; Isaacs 2022, 63; Laruelle 2021, 136; Olcott 1997, 211; Schatz 1999, 146-147). 즉 항의시위와 대규모 청원운동의 형태로 전개된 슬레이메노프의 반핵 운동은 나자르바예프의 지지를 받은 움직임이었고, 이에 1991년 10월 슬레이메노프가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에 기반하여 창립한 정당 카자흐스탄인민대회(People’s Congress of Kazakhstan)도 처음에는 나자르바예프를 강력하게 지지했다(Hiro 2009, 243; Olcott 1997, 211).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가 정치색을 떨 수밖에 없는 이슈 영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결정과 그 결과에 비판적이었고,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운동의 목표에 공명하기도 했기 때문에(Schatz 1999, 152),¹⁴⁾ 운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 의회 의원 출신 두 인물이 이끈 라드는 주로 러시아어의 제2국어 지위 부여 및 러시아와의 이중국적 합의 체결 이슈에 집중했고 1994년 3월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총선에서 4명의 의원을 배출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동원력을 과시했다(Oka 2007, 119, 122). 라드 일부 구성원 및 라드와 관련된 몇몇 코사크인(Cossack) 단체들은 카자흐스탄 혹은 그 일부 지역을 러시아와 합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이들이 이러한 분리주의 주장에 대해서까지 대중적 지지를 규합할 정도의 조직력과 자원을 보유한 것은 아니었다(Dave 2007, 125; Olcott 1997, 214). 또한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러시아인 문제(Russian question)’라는 민족적·언어적 균열구조가 존재하는 카자흐스탄에서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국가 통치 및 통일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여(Oka 2007, 120) 이에 대한 대처에 나서지 않을 수 없

13) 세미팔라틴스크는 카자흐스탄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핵 실험장은 이 도시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2007년 세미팔라틴스크는 세메이(Semey)로 개칭되었다.

14) 나자르바예프는 국제사회에 카자흐스탄을 비핵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했는데, 이를테면 카자흐스탄은 1993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고 1995년 4월까지 모든 전략·전술 핵무기를 폐기했다(Cirincione et al. 2005, 371).

었던 움직임이기도 하였다.

재정 자원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¹⁵⁾ 카자흐스탄의 1세대 정치적 반대세력으로서 인텔리의 의제 중심 사회운동단체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적극적인 정치적 요구·활동·참여를 삼가면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민족·환경 이슈가 본연의 성격상 정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처럼 정치와 거리를 두는 운동의 지속은, 운동의 활동 영역이 협소해지고 영향력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대중적 지지층이 얇어지고 결국 운동이 하라세에 접어드는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가 바로 이러한 비정치화의 길을 걸었지만 국제적 연대의 움직임을 통해 그러한 경로가 수반하기 쉬운 운동의 쇠퇴를 피할 수 있었다.¹⁶⁾ 1세대 정치적 반대의 두 번째 선택지는 정부와의 경쟁·마찰·대립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영역에서 의제의 온전한 실현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권위주의화의 궤도에 올라서고 있던 정부와의 관계 혹은 그러한 정부의 대응이 관건이 된다. 즉 정치적 관여와 활동을 선택할 경우 운동은 정부와 협력하면서 정부에 의한 의제의 점진적, 때로는 부분적 수용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주장의 관철을 위해 정부와 충돌하거나 정부의 억압을 감수하는 위험을 무릅쓸 것인지를 또다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든 사회운동으로서의 1세대 정치적 반대는,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권위주의 체제의 공고화를 진전시켜 나아가고 대중은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적응과 생존에 진력해야 했던 1990년대의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에서 점차 그 활동의 약화를 피하기 어려웠고, 이에 현재까지도 활동 중인 1세대 정치적 반대세력은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밖에 없다.¹⁷⁾

15) 이는 1990년대 전반기에 카자흐스탄이 심각한 경제하락을 겪었다는 점과 관련되는데, 예를 들면 1991-1995년 사이에 카자흐스탄의 GDP는 40% 이상 감소했고, 1992-1994년 인플레이션율은 연속해서 1,000%를 크게 상회했으며, 1994년 빈곤선 이하 인구는 50%를 넘었다(Peyrouse 2007, 482; Pomfret 2005, 860). 1990년대의 경제하락은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이처럼 국가 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들의 사회운동 지원·참여 저조 및 사회운동의 재정 자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16)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는 운동의 목표를 생태-국제주의(eco-internationalism)로 프레입화하여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 비핵화 이후에도 운동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이었다(Schatz 1999, 150-152).

17) 2005년에 결성되어 2009년까지 활동한 아자트는 후술될 2세대 정치적 반대에 속하는 야당으로 1990년대의 1세대 정치적 반대 운동 아자트와는 명칭만 다를 뿐 전혀 별개의 정당이다.

2. 1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억압과 포섭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사회운동 형태로 등장한 카자흐스탄의 1세대 정치적 반대가 대중 동원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치 않은 환경에서 활동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대응은 권위주의 체제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그 대표적인 생존 전략인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과 포섭의(Frantz 2018, 104) 두 양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자신과 대립되는 주장과 활동을 고집·지속한 1세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서는 억압이라는 방법으로, 동의 혹은 수용할 수 있는 노선을 밝거나 억압의 비용이 너무 큰 반대자에 대해서는 포섭이라는 방법으로 차별적인 대응을 펼 것이다. 이처럼 운동 지도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대응은, 1세대 정치적 반대세력이 극심한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으로 인해 생존 혹은 생계 문제를 해결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이들로부터 대규모 지지를 받기가 여의치 않았던 체제전환의 조건에서 운동을 차단하거나 위축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또한 체제전환의 귀추와 결과가 확정적이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대중은 일단 정부의 정치경제적 결정과 정책의 추이를 두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한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적어도 강력하게 반발할 수는 없었다. 정치적 반대의 출현과 활동에 대해 그러한 것처럼, 정치적 반대에 대해 정부가 취한 대응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사회경제적 구조 혹은 현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1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 가한 고강도 억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알라쉬 지도자 아타벡에 대해 취한 행동을 들 수 있다. ‘극단주의’ 및 ‘이슬람주의’ 낙인이 찍혀 등록 거부와 금지 처분을 받은 알라쉬를 이끌었던 아타벡은 정부의 억압을 피해 1991년 모스크바로 망명했지만 그곳에서도 반(反)나자르바예프 활동을 하다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구로 체포된 바 있었고, 이후에는 아제르바이잔으로 넘어가 활동하다가 1996년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여 정치·출판 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2006년 알마티 외곽 무허가 주택 철거 과정에서 공권력과 충돌하여 2009년 경찰 납치 및 살해 혐의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Dave 2007, 169-170; Laruelle 2021, 171-172).¹⁸⁾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해 나

18) 아타벡은 2006년 알마티 외곽의 ‘불법 거주지’ 철거 반대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된 집단 폭동 조직, 납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옥중에서도 나자르바예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수

간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1세대 정치적 반대의 완강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강력한 억압의 대응을 보인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호전적 요소가 제거되며 재편된 알라쉬에 대해서는 그 지도자에 대해 한 것처럼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아서 1999년 이 정당의 등록을 허용하나, 알라쉬는 그해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실패했고 2003년에는 등록이 거부되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지 못했다(Laruelle 2021, 172).

한편 나자르바예프는 종교와 더불어 민족에 기반한 정당의 사회정치적 위협성에 대해 직접 단호하게 반대의 뜻을 천명한 바 있다(Cummings 2005, 80).¹⁹⁾ 이에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정치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접지 않은 러시아 민족주의 운동 라드의 재등록을 주기적으로 거부했고, 그 지부들은 무기소지, 마약 밀매 등의 혐의와 재정 통제를 받았으며, 그 지도자들은 물리적 공격을 받거나 민족적 적대감 선동 및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는 등의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러시아로 떠나버린다(Oka 2007, 124; Peyrouse 2007, 487-489). 라드 및 특히 그 지도자들에 대한 국가의 억압에 더해 러시아 민족주의 진영 내에서 정치적 반대의 입장을 견지한 라드와 나자르바예프 정부와의 협력 노선을 선호한 활동가들 간에 분열까지 발생하면서 라드는 영향력을 상실하여 독립적인 정당으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말에 이르면 러시아 민족의 정치적 활동이 실패하여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인 문제’는 더이상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게 된다(Oka 2007, 143-144; Peyrouse 2007, 488-489).

1991년 카자흐스탄인민대회 설립 이후 매우 독특하게 전개되는 슐레이메노프의 정치적 경력은 그와 나자르바예프 정부 간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데, 그에 대해 보인 정부의 태도는, 정부가 1세대 정치적 반대의 일부 지도자에 대해 공식 기회 제공이라는 포섭의 방법으로 대응하여 그의 도전 혹은 저항의 시도를 약화시킨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1991년 창당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서면서 슐레이메노프는 나자르바예프에 대해 점점 비판적으로 되어갔는데, 예를 들면 1994년에 그는 다음 해로 예정되었던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1995년 3월 의회가 해산되자 열린은 의회 해산을 위해 탱크 여러 대가 필요했지만 나자르바예프는 이를 위해 선거구 소송을 제

감 생활 중 건강 악화로 2021년 10월 석방되었으나 11월 코로나 감염증으로 사망했다(Sorbello 2021).

19) 이러한 그의 뜻은 법제화되어 2002년 제정된 카자흐스탄 정당법에 따르면, 민족·종교·젠더에 기반한 정당의 창설은 금지된다(Bowyer 2008, 10).

기할 단 한 사람만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비난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는 등 나자르바예프와 갈등을 빚었다(Cummings 1999, 80, 86; Dave 2007, 106). 그렇지만 솔레이메노프와 나자르바예프가 유라시아주의라는 이념적 유사성이 있는 인물들이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솔레이메노프는 급진적인 카자흐 민족주의자나 러시아 민족주의 단체 및 그 지도자들처럼 정부의 억압을 받는 대신 1995년 이탈리아 대사, 이후에는 파리 유네스코(UNESCO) 상주대표로 임명되면서 정책 결정권은 없지만 대중적 인기와 신망은 유지할 수 있는 직위에 포섭된다(Laruelle 2021, 136, 143, 149). 나자르바예프로서는 1995년에 자신의 임기 연장과 신헌법 채택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화한 마당에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상징적 중요성이 있는²⁰⁾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여 굳이 대내외적 논란과 반발이라는 정치적 비용을 치르기보다는 그에게 권력 중심 밖의 한직을 맡기고 해외 거주 기회 제공함으로써 체제 내로 포섭한 것이다. 이로써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솔레이메노프와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행위자가 ‘방해할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포섭의 주요 목적을(Frantz 2018, 111) 달성하는 데 성공한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1995년 3월 카자흐스탄 내 소수민족 단체와 그 지도자들을 제도권 정치로 포섭함으로써 소수민족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고 ‘민족 간 화합’과 안정을 이루며 시민적(civic) 민족정체성을 형성할 목적으로 대통령 자문기구 카자흐스탄민족회의(Assembly of Peoples of Kazakhstan)를 설립한다(Jones 2010, 160; Oka 2007, 137-138; Peyrouse 2007, 483). 구성원 일부가 민족단체 대표들로 충원된 그리고 가입된 민족단체들에 정치·경제·사회적 혜택을 제공한 카자흐스탄민족회의는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민족 포섭(ethnic co-optation)’을 위한 핵심적인 기구로 조직되었는데, 정부의 주요 포섭 목표였던 민족 집단은 바로 러시아인이었다(Oka 2007, 138-142).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국가기구 설치를 통해 민족 포섭을 시도한 결과,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러시아 민족단체들은 친정부 노선으로의 전향 혹은 반정부 노선의 고수를 놓고 분열상을 나타냈고, 정부는 모든 러시아인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더라도 러시아 민족단체는 모두 회유·포섭하는 데 성공하여 러시아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정치적 반대세력의 대두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Oka 2007, 142-147; Peyrouse 2007, 488-489).

20) 집권 초기에 나자르바예프가 가장 두려워한 인물이 솔레이메노프였다는 점은(Olcott 2002, 120-121) 이러한 점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정치적 기회구조 개념을 적용하여 카자흐스탄의 1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 보인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면, 소비에트 말기에는 체제의 개방성이 높아지고 국가의 억압이 약화되면서 사회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대된 것과 반대로,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들어서는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권위주의 체제 구축·공고화와 더불어 체제는 폐쇄적으로 되어가고 억압의 강도는 높아지면서 정치적 기회구조가 축소되었다. 일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포섭의 대응도 취해졌다는 점에서 모든 1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강도 억압이 가해진 것은 아니지만, 소비에트 말기에 비하면 사회운동의 활동과 동원에 매우 불리한 외적 조건이 조성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자신에 대한 견제와 도전의 움직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 혹은 불확실성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나가게 된다.

III. 2세대 정치적 반대와 정부의 대응

1. 2세대 정치적 반대: 엘리트의 이익 추구 정당

카자흐스탄의 2세대 정치적 반대는,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경제개혁이 1990년대 말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견인한 과정에서(Ostrowski 2009, 349; Pomfret 2005, 862) 의도치 않게 야기된 엘리트 내부 이해관계의 분화라는 새로운 경제적 균열구조의 틈새에서 일부 엘리트가 설립한 이익 추구 정당의 형태로 나타났다(Junisbai & Junisbai 2005, 374-375, 381-386). 이론적 개념으로 1세대와 2세대 정치적 반대의 출현을 정리하면, 1세대 정치적 반대는 소비에트 말기 체제의 개방성 확대와 억압의 약화라는 정치적 기회구조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난 ‘비공식집단(informal groups)’ 유형의 사회운동이었고, 2세대 정치적 반대는 포스트소비에트 엘리트 체제의 불안정성 혹은 균열이라는, 1세대 정치적 반대의 그것과 다른 정치적 기회구조의 맥락에서 발생한 엘리트 정당이었다. 1·2세대 정치적 반대는 정치적 기회구조 이외의 다른 구조적 조건도 상이하게 조성된 상황에서 출현했는데, 1세대 정치적 반대가 소비에트 권위주의 체제의 약화와 경제하락이라는²¹⁾ 거시적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등장했다면, 2세대

21) 특히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변화가 시도된 1990-1991년 소련 국민총생산(GNP) 평균 성장률은 -7.7%로 크게 떨어졌다(Kotz & Weir 2007, 72-73).

정치적 반대는 카자흐스탄의 정치·경제체제전환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권위주의 체제의 공고화와 1990년대 말 이후 경제성장이라는²²⁾ 결과를 낳고 있던 상황에서 대두되었다.

카자흐스탄의 2세대 정치적 반대를 대표하는 정당은, 전직 에너지·산업·통상부 장관이자 거부(巨富) 은행가 아블라조프(Mukhtar Ablyazov)와 파블로다르(Pavlodar) 주지사 자키야노프(Galymzhan Zhakiyanov)를 필두로 하는 일군의 경제·정치 엘리트가 2001년 11월 창설한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Democratic Choice of Kazakhstan)’이다.²³⁾ 소비에트 시기에 기원을 둔 인텔리로 주로 구성되었던 1세대 정치적 반대와 달리,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은 정치체제, 공직, 핵심적인 경제 부문에 참여한 경험과 정치적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재원을 보유하고 서구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층 엘리트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Isaacs 2022, 80; Junisbai & Junisbai 2005, 380; Ostrowski 2009, 353). 즉 대체로 소비에트 체제 주변부에서 체제 비판적인 인텔리로 이루어졌던 1세대 정치적 반대와 달리, 2세대 정치적 반대의 구성원은 새로운 포스트소비에트 체제 형성에 관여하여 그 혜택을 입은 내부 엘리트였다.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이 카자흐스탄의 2세대 정치적 반대를 상징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정당이 막대한 부를 소유했고 일부 언론 매체를 통제했으며 알마티 집회에서 군중 동원에 성공하기까지 하면서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미래 중추 세력이라고 여겨진 중간계급에 호소하려 했다는 점에서 나자르바예프 정부에 ‘진정한’ 혹은 ‘가장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 세력이었기(Ostrowski 2009, 354-355)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의 등장이 제기한 공개적인 도전의 위협과 관련하여 그 움직임은 ‘신(新) 카자흐인의 반란(revolt)’이라고, ‘반란’이 일어난 2001년은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표현되기까지 한다(Ibadildin & Pisareva 2020, 102, 106).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이 홀연 평지에서 돌출한 정치적 반대는 물론 아니어서 이 정당의 결성 이전에 말하자면 그 마중물 역할을 했던 시도도 있었다. 1994-1997년 나자르바예프 정부에서 두 번째 총리를 지낸 카제겔딘(Akezhan Kazhegeldin)이 총리직 수행 중에 자신이 주도한 사유화의 주요 수혜

22) 2000-2007년 카자흐스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0.2%였고,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은 석유 수출로 촉진된 대외교역의 증가였다(Pomfret 2019, 30, 74).

23)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 창립 멤버에는 부총리, 노동·사회보호부 장관, 국방부 차관, 재무부 차관, 상·하원 의원,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 은행장, 기업인 등이 포함되는 등(Cummings 2005, 29; Isaacs 2022, 82; Junisbai & Junisbai 2005, 380) 그 면면이 매우 화려했다.

자인 청년층 기업인 사이에서 권력 기반을 구축하여 차기 대선에서 나자르바예프와 경쟁하기 위해 1998년 카자흐스탄공화인민당(Republican People's Party of Kazakhstan)을 창설한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Ostrowski 2009, 354). 소련 KGB에서 교육을 받고 경력을 시작한 카제겔딘 그 자신이 소비에트 및 포스트 소비에트 엘리트 간의 단절을 신호·의미하는 인물은 아니었고, 그가 설립한 정당이 카자흐스탄의 정치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었지만, 그의 시도는 이후 반나자르바예프 세력의 형성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다(Junisbai & Junisbai 2005, 378; Ostrowski 2009, 354). 예를 들면, 1994년 10월 총리로 임명된 후 카제겔딘이 경제정책을 책임지면서 등용한 국립은행장과 경제부 차관, 총리 시절 그가 '후원자'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카자흐스탄 최대 은행장 등이 2001년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 창립 멤버가 되고, 이 정당의 설립을 주도한 이들 중 한 명이었던 자키야노프는 고르바초프 시기에 카제겔딘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전력(前歷)이 있는 그의 오랜 지인이었다(Cummings 1999, 86, 93, 250).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 출범 이전 및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 정당의 지향과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경제체제전환 이후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의 엘리트는, 나자르바예프의 가족 구성원과 측근으로 구성되어 석유·가스 및 천연자원 통제권을 획득한 핵심층(inner circle) 혹은 ‘나자르바예프 클랜’과 경제 자유화 및 사유화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부터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수익성 높은 경제 부문으로의 진출은 차단된 기업인으로 이루어진 차상위(second tier) 혹은 외곽 집단(outer circle)으로 이원화된다(Junisbai 2010, 236, 243, 247).²⁴⁾ 핵심층 엘리트 중에서도 대통령의 자녀들이 1995년경부터 정치·경제 영역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카자흐스탄의 정치적 갈등은 특히 나자르바예프의 첫째 딸 다리가(Dariga Nazarbayeva)나 첫째 사위 알리에프(Rakhat Aliyev)가 개입된 경제적 충돌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두 인물은 특권적 지위나 기업사냥(рей дерство)의 방법을 사용하여 경쟁자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폐쇄시켰고,²⁵⁾ 이에 차상위 엘리트 사이에서는 유감(resentment)이 고조되었다(Junisbai 2010, 247-249).

24) 핵심층 및 차상위 엘리트에 속했던 인물들과 그들이 소유하거나 관련되었던 사업체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Junisbai(2010, 244-246) 참조.

25) 이러한 약탈적 기업 장악 행위 및 영향력 확대의 결과로 다리가와 알리에프가 지배력을 행사한 부문은 제당 산업, 알코올 산업, 예능 산업, 석유·가스 산업, 언론, 안보, 세무 등 가히 전방위적이었다(Dave 2007, 148; Junisbai 2010, 244).

이러한 가운데 2001년 가을 국가안보위원회(KNB) 부의장으로서 나자르바예프의 지지에 힘입어 무제한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알리에프가 아블라조프의 은행과 언론사를 인수하려 하고, 카자흐스탄 최대 은행의 국가 지분이 경매에서 알리에프와 관련된 기업에 낙찰되자 그의 ‘뻔뻔함과 무자비함’에 대한 반감과 공포를 함께하던 일군의 기업인이 ‘공동의 적’을 완곡하게 비판한 공개 서한을 언론에 발표했지만, 오히려 나자르바예프는 TV 연설에서 이들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근거 없는’ 것으로 일축하며 알리에프를 옹호했고, 그러자 이튿날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 결성이 발표되었다(Ibadildin & Pisareva 2020, 107; Junisbai 2010, 249-251; Junisbai & Junisbai 2005, 380-381). 한편으로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의 설립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안녕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이 자의적으로 엘리트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지배 가문의 권력임을 간파하여 정치적 통로를 통해 자신들의 재산과 사업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이는 ‘삶의 경험을 통해’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천장’에 이르자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과 법률이 적용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건설하려는 시도였다(Junisbai 2010, 250; Junisbai & Junisbai 2005, 382-383; Ostrowski 2009, 354). 다른 한편으로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은 외부자(outsider) 지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외, 진정한 정치적 영향력 획득의 불가능성 등에 실망한 엘리트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조직이었고 이 운동에 참여한 주요 행위자 ‘모두가 공유한 공동의 목표’는 없었다는 점에서 (Ibadildin & Pisareva 2020, 107) 그 한계가 분명한 단체이기도 하였다.²⁶⁾

한편 2000년대 중반에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정치적 반대로서 나자르바예프에 대한 일종의 궁중 쿠데타가 기도되기도 했는데, 그 주역은 역설적이게도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 결성에 빌미를 제공했던 그의 첫째 사위 알리에프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촌극과도 같은 정변 라하트게이트(Rakhhatgate)가 발발한 것이다. 알리에프의 이름을 따서 일컬어진 라하트게이트는, 2007년 1월 알리에프가 기업사냥을 위해 은행가들을 납치한 사건이 보도된 후 오스트리아 대사직을 맡아 해외에 피신해 있는 중이던 같은 해 5월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의 임기 제한이 철폐되자 대권 도전 야망이 좌절된 알리에프가 공개적으로 나자르바예프를 비난하고 권력 내부 정보를 폭로한 사건을 말하는데, 이 스캔들은 알

26) 2005년 1월 알마티 법원은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에 대해 해산 명령 판결을 내렸다(Junisbai & Junisbai 2005, 386; Ostrowski 2009, 358-359).

리에프가 직위 해제되고 다리가와의 이혼을 사후 통지받으며 궤석 재판에서 20년형과 자산 몰수를 선고받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Hiro 2009, 278-280; Ibadildin & Pisareva 2020, 108; Junisbai 2010, 253-254; Schatz & Maltseva 2012, 58).²⁷⁾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 카자흐스탄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이 시기 카자흐스탄에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고공 경제성장이 이어졌고, 인접한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과 달리, 대규모 대중봉기나 이에 의한 정권교체의 조짐도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카자흐스탄의 안정적인 정치·경제현실 이면에서는 정치적·경제적 경쟁이 극도로 제한된 권위주의 체제 및 그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체제가 부과한 제약과 구속을 극복하여 자신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이 엘리트 사이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그 불만과 욕망을 공식 정치 무대로 끌어올려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하려 했던 움직임이 카제겔딘의 도전과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의 설립이라는 2세대 정치적 반대의 출현이었고,²⁸⁾ 그 불만과 욕망을 ‘예측 불가능하고 반항적인’ 인물이(Schatz & Maltseva 2012, 57) 돌발적으로 표출한 사건이 알리에프의 난이었다. 한편 이 시기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제기된 정치적 반대는 어쨌든 기존 체제의 수혜자였던 엘리트 차원에서 시도된 저항이었고, 그 체제를 구축한 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받는²⁹⁾ 혹은 적어도 다수

27) 결국 라하트게이트는 2015년 2월 알리에프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던 오스트리아 감옥에서 갑자기 자살함으로써 최종 마무리되었다(Ibadildin & Pisareva 2020, 108).

28) 자기 이익은 특히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의 결성을 추동한 ‘핵심적인 원동력’이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당시 여당 오타(Otan, ‘조국’) 부의장은 이를 비난하는 표현으로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의 진정한 목적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카자흐 최대 올리가르히’가 ‘자신들의 필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Junisbai & Junisbai 2005, 381).

29) 예를 들면, 2005년 12월 실시된 대선에서 나자르바예프는 91%를 상회하는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는데, 이 선거가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졌더라도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나자르바예프가 손쉬운 승리를 거뒀을 것이라고 평가되었고, 한 강력한 야권 인사마저 “나자르바예프의 인기는 진짜”라고 인정했다(Schatz 2009, 203, 208). 또한 2007년 8월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여당 누르오타(Nur Otan, ‘조국의 빛’)은 88.4%의 지지율을 획득하고 다른 정당들의 득표율은 원내 진출 가능 하한선(7%)에 미달하여 누르오타는 하원에서 정당이 배정된 98석 전석(全席)을 차지했다(Bowyer 2008, 12, 48-49). 이로써 카자흐스탄 의회 하원은 단일 정당으로 구성되게 되었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입법부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이는 이 시기에 아래에서 논의될 정부와 대중 간의 비공식 사회계약이 유효했기에 형성될 수 있었던 정치 지형이었다.

의 대중이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과 유리된 엘리트가³⁰⁾ 제기한 정치적 반대의 승산은 높을 수 없었다.

2. 2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억압과 담론 공세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카자흐스탄 경제의 안정화로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경제 우선’ 노선이 결실을 거두는 것으로 보이게 됨에 따라 정부와 대중 간의 사회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경제성장이 유지되는 한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정치적 반대에 고강도 억압을 가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중의 저항과 반발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때 사회계약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과 권리 보호의 대가로 자신의 자연권에 대한 제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시민들 사이의 암묵적 계약”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자원 부국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정당성은 매우 특별한 종류의 사회계약, 즉 “국가는 사회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는 국가 관료에게 정책 결정에서의 일정한 자율성을 제공”하는, 이른바 ‘지대 추구 사회계약(rentier social contract)’에 기반해 있었다(Ibadildin & Pisareva 2020, 103).³¹⁾ 따라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 등장한 2세대 정치적 반대는, 1세대 정치적 반대가 출현했던 10여 년 전보다 더욱 억압의 사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2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강력한 억압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회계약에 기반한 국가-사회관계라는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엘리트 주도의 2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한 정부의 인식 또한 영향을 미쳤다. 즉 기존 체제의 수혜자이자 체제 건설과 유지에 기여한 세력인 엘리트 일부의 이탈 및 체제 반대는 체제의 안정성 혹은 통일성에 균열이 존재함을 혹은 새로 생겼음을 노출시킴으로써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대중적 불만의 형성 혹은 결집을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반대 엘리트를 그 수적 규모, 요구·

30) 카자흐스탄에서 엘리트와 대중을 가르는 간격은 상당히 크며, 이는 정부 내부 엘리트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에 속하는 엘리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Junisbai 2010, 262).

31) 유사한 유형의 사회계약이 성립되어 작동한 브레즈네프 시기의 정치체제가 ‘복지국가 권위주의’로 정의된 바 있는데,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는 카자흐스탄이 이러한 ‘복지국가 권위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논의된다(Ibadildin & Pisareva 2020, 103-104).

주장의 수준과 범위, 반대가 성공할 실질적 가능성에 비해 훨씬 더 큰 체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내부 배신자로 간주하여 억압을 통한 응징에 나선 것이다.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바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서는 사용했던 포섭의 카드를 2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서는 꺼내 들지 않고 후술될 다른 대응 수단을 모색·적용한다.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2세대 정치적 반대를 이끈 엘리트 개개인에 가한 고강도 억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총리직을 사임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으로 돌아선 카제겔딘은 1998년 비등록 집회 참여라는 비교적 경미한 ‘행정적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며 카자흐스탄을 떠나야 했고, 이후에도 직권 남용, 탈세, 돈세탁 혐의로 궤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나자르바예프의 ‘원수(nemesis)’가 되어(Hiro 2009, 267; Isaacs 2022, 84; Junisbai & Junisbai 2005, 378; McGlinchey 2011, 151) 지금까지도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001년 결성 직후부터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분노를 샀던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을 주도한 아블라조프는 2002년 불법 금융 거래 혐의로 6년 형을 선고받아 10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정치 개입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사면되어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으나, 이후 반정부 단체와 독립 언론을 재정 지원하자 횡령 및 지위 남용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2009년 영국으로 망명 혹은 도피한 뒤(Ibadildin & Pisareva 2020, 107; Sindelar 2013) 카제겔딘처럼 아직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³²⁾ 아블라조프와 함께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 설립에 앞장섰던 자키야노프 역시 2002년 직권 남용 혐의로 7년 형을 선고받고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2006년 가석방된 뒤 카자흐스탄을 떠났고, 이후에는 그의 공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기 힘들 정도로(Dave 2007, 147; Ibadildin & Pisareva 2020, 107) 현재 그는 카자흐스탄 정치의 철저한 국외자가 되었다.

1세대 정치적 반대 운동을 주도한 인텔리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2세대 정치적 반대의 움직임을 추진한 엘리트에 대해서도 말하자

32) 아블라조프가 카자흐스탄을 떠난 이후에도 그와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첨예한 대립은 계속된다. 예를 들면,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다음 장에서 논의될 2011년 자나오젠(Zhanaozen) 사태의 배후로 아블라조프를 지목했고, 이에 2012년 사법부는 그와 연관된 반정부 정당과 언론사들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여 폐쇄시켰다(Satpayev & Umbetaliyeva 2015, 127; Sindelar 2013). 아블라조프 또한 해외에서도 나자르바예프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는데, 예를 들면 2013년 아블라조프의 아내와 어린 딸이 위조 문서 소지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추방되어 카자흐스탄으로 송환되자 그는 이를 나자르바예프의 명령에 따른 ‘노골적인 테러 전술’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Sindelar 2013).

면 각개격과 방식의 강력한 억압으로 대응했고, 이는 결국 2세대 정치적 반대의 조직화를 좌절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아블라조프와 자키야노프가 개별적으로 고강도 억압을 받은 것에 더해,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이해관계’와 ‘통일성의 결여’로 인해 태생적으로 국가의 억압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 구성원 중에서 공직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에 대한 해임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하자 구성원 일부는 운동을 떠나거나 참여를 철회했고, 다른 일부는 2002년 1월 나자르바예프 정부와의 이해와 협력, ‘건설적’ 혹은 ‘정중한(polite)’ 관계를 목표로 한 온건과 약졸(Ak Zhol, ‘밝은 길’)을 창당했다(Ibadildin & Pisareva 2020, 107; Isaacs 2022, 85-86; Junisbai & Junisbai 2005, 380; Ostrowski 2009, 355). 이후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은 카자흐스탄공산당과 연합하여 2004년 9-10월 총선에 참여하나 경찰의 당 활동가 구금, 지방 당국의 유세 개입, 법집행기관의 협박 등 정부의 조직적 방해로 받아(Isaacs 2022, 87) 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³³⁾ 즉 정부의 강력한 억압에 부딪혀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은 분열·참패한 것이고, 예측 가능했던 그리고 예측대로 현실화된 다음 수순은 2005년 1월 사법부의 당 해산 결정이었다(Junisbai & Junisbai 2005, 386; Ostrowski 2009, 358-359). 이처럼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한 엘리트에 대해 나자르바예프가 보인 매우 가혹한 대응은, 그가 자신의 통치기에 부를 축적한 기업인과 공직 경력을 쌓은 정부 관료에게서 배신감을 느껴 이들의 ‘반란’을 이들로부터 기대한 개인적 충성의 위반으로 간주했고, 따라서 이후에도 이들이 요구한 정치체제의 자유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는 신호였다(Ibadildin & Pisareva 2020, 102; Sindelar 2013).

2세대 정치적 반대의 움직임에 대해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취한 대응에는 억압뿐만 아니라 담론 공세도 포함된다. 2000년대 말까지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안정적으로 권위주의 통치와 체제를 지속·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들 중에는 ‘정보 관리’와 ‘설득 기술’을 통한 ‘담론적 선점(discursive preemption)’ 전략이 포함되는데(Schatz 2009),³⁴⁾ 정치적 도전·반대세력에 대해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33) 독자적으로 2004년 총선에 참여한 약졸 당 역시 하원 전체 77석 가운데 1석만을 차지했을 뿐이어서 엘리트 정당 형태의 2세대 정치적 반대가 의회에 진출하려던 시도는 완전히 무산되었다.

34) ‘담론적 선점’이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반대자의 활동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드라마의 연출” 혹은 “정치에 대한 그럴듯한 서사와 공적인 의례의 창출”로 정의되는데, 나자르바예프가 선점한 담론으로는 민주화와 인권에 대한 수사(修辭), 중도주의자 이미지, 정치적 다원주의의 용인, 선거 부정에 대한 대내외의 우려·비난에 대한 반론과 역정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선제적 비난 등이 논의된다(Schatz 2009, 207,

보인 대응의 하나로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 담론의 공세적 유포는 헤게모니적 담론³⁵⁾ 활동의 일부이자 또한 이들의 등장 이후에 취해진 반응적 사후 대처의 성격을 갖는 움직임이었다.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의 대부(代父)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카제겔딘에 대해서도 주요 언론을 통한 ‘흑색선전(чёрный пиар)’이 진행된 바 있었지만(Isaacs 2022, 84), 특히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에 대해 정부 측이 보인 즉각적인 반응은 매우 신랄한 담론 공세였다. 예를 들면, 2001년 10월 말 기업인들이 알리에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서한을 언론에 공개하자 나자르바예프는 공개적으로 “이들이 마치 카자흐 시민이 아닌 것처럼 말했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탈세에 대해 경고했고,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 결성의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인 알리에프는 한술 더 떠 “사회의 건강한 세력이 자유롭게 일하고 숨 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쓰레기와 싸울 것”이라는 거친 말을 내뱉었으며, 당시 총리였던 토카예프(Khassym-Jomart Tokayev)는 운동의 설립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하는 척하는” “음모가들”이고 운동은 “혼란과 정치적 무법상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Junisbai & Junisbai 2005, 378-381). 이러한 일련의 반응이 말해주는 바는, 공정한 국가 운영 혹은 정치체제 개혁을 요구한 엘리트 반대세력에 대한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언어적 대응은 오히려 이들을 국가 운영과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혹은 이를 교란시키는 불순 세력으로 프레임화한 담론 공세였다는 점이다. 대중이 이러한 정부 담론을 액면 그대로 믿었을 것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대중과의 사회계약을 이행하고 있던 정부가 부와 지위 면에서 대중과 괴리되어 있던 엘리트에 대해 만들어낸 부정적 담론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추론 가능하며, 2004년 총선 결과는 바로 이러한 정부 담론의 유효성을 일정 정도 입증해주었다고 하겠다.

체제 내부 세력이기는 했지만 권력 핵심층 내부에서는 배제된 차상위 엘리트가 주도한 2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강력한 억압과 담론 공세로 대응한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중후반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정부와 대중 간의 사회계약이 유효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2세대 정치적 반대는 1세대 정치적 반대와는 다른 의미에서 광범위한 대중의 동의와 지지를 기대하

210-213).

35) 정당성 담론 혹은 공식 담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헤게모니적 담론은 안정 우선 담론, 나자르바예프의 안정 제공자 역할 담론, 국가와 국민의 일체성 담론, 국가 관리주의 담론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이었다(Lewis 2016, 424-425).

기 힘든 환경에서 활동에 나섰다. 그리고 1995년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권위주의 체제 공고화 이후 제도적 반대를 재수립하려고 시도한 움직임이었던 2세대 정치적 반대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봉쇄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반대세력의 의도와는 다르게 체제 강화에 기여하고 말았다(Isaacs 2022, 91-92). 이 과정에서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권위주의 체제 공고화에 따른 사회운동에 대한 체제 개방성 축소라는 유리한 환경에서 2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 고강도 억압과 담론 공세를 가하는 대응을 보였고, 이를 통해 정치적 반대를 사실상 꺾어버리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IV. 3세대 정치적 반대와 정부의 대응

1. 3세대 정치적 반대: 대중의 정치경제적 항의시위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과 알리에프의 난이 실패한 이후 엘리트 차원에서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유의미한 도전이 제기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2015-2016년 무렵이면 기존의 정치적 반대는 ‘완전한 소멸’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되었다(Ibadildin & Pisareva 2020, 108; Kudaibergenova & Laruelle 2022, 441). 그렇지만 2010년대 들어 1·2세대 정치적 반대와는 주체와 형태가 판이하게 다른 3세대 정치적 반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³⁶⁾ 인텔리나 엘리트가 아닌 대중이 직접 체제 혹은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대에 나서 전개한 풀뿌리 항의시위가 바로 그것이다.

3세대 정치적 반대의 구성과 유형이 이전 세대 정치적 반대의 그것과 상이하다는 사실은, 3세대 정치적 반대가 발생한 구조적 조건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는 점과 관련되는데, 그 구조적 조건의 변화는, 국가 경제가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에 연동되어 침체되는 양상을 반복한 카자흐스탄 경제의(Pomfret 2019, 69-70) 구조적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었

36) 물론 카자흐스탄에서 대중의 집단행동 형태의 정치적 반대가 201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알마티 주택문제와 관련한 항의시위는 심지어 1980년대 말부터 이어지고 있었다(Isaacs 2022, 99). 그렇지만 대중의 항의시위가 국지적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 차원을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나 그 권위의 실추를 드러내거나 체제 불안정을 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이후라는 점에서 이 글은 2010년대 이후 대중의 항의시위를 3세대 정치적 반대로 구분한다.

다. 게다가 2009년과 2014-2015년 카자흐스탄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 이후에는 경제의 회복과 성장이 그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Pomfret 2019, 30)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의 기초였고 2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한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대응의 성공을 담보해주었던 기존 사회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까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회의적 시각과 불만의 표출이 바로 3세대 정치적 반대였다.

카자흐스탄의 3세대 정치적 반대는 국가 경제구조의 취약성 노출, 기존 사회계약의 위기, 대중의 불만과 저항 행동이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정치 현상인데, 그 첫 번째 사례는 2011년 12월 자나오젠(Zhanaozen)³⁷⁾ 사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태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고려할 것은 카자흐스탄 국가 경제의 자원의존형 구조에 기인하는 문제로 여기에는 첫째, ‘발전 없는 성장’, 둘째, 높은 부패 수준과 협소한 관료층의 불투명한 천연자원 운용, 셋째, 빈곤과 불평등이 포함된다(Satpayev & Umbetaliyeva 2015, 123). 이들은 서로 분리된 개별적인 문제들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관된 하나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카자흐스탄 정부의 전통적인 ‘경제 우선’ 정책이(Satpayev & Umbetaliyeva 2015, 124) 약속한 성과를 거둘 때에는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대중의 실망과 좌절, 불만을 확산시키고 기존 사회계약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낳게 되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2008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된 이후로 카자흐스탄의 국가-사회관계는 후자에 해당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2019년에 끝난 나자르바예프 통치기의 마지막 10여 년은 정부가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2010년 1월에서 2022년 1월 사이에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시위와 소요, 그리고 사망자 수는 각각 2,559건과 65건, 그리고 61명이었다(Kudaibergenova & Laruelle 2022, 446).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어떠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든 신속하게 그리고 대체로 효과적으로 대응했고, 경찰은 시위 해산 과정에서 치명적인 혹은 야만적인 수단의 사용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예외 사례가 바로 자나오젠 사태였다(Marat 2016, 537).

2011년 자나오젠 사태는 국가 차원의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지역 차원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더해지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후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나오젠이 위치한 만기스타우(Mangistau) 주의 산유량은 국가 전체의 약 70%를

37) 자나오젠은 카자흐스탄 남서부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 채굴 지역 만기스타우(Mangistau) 주에 위치한 도시이다. 항구도시이자 주도(州都)인 악타우(Aktau)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져 있다.

차지하지만, 열악한 노동·거주 조건의 이곳 노동자들은 국가의 경제적 번영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느끼고 있었고, 2000-2010년 주로 해외에 거주하던 에스닉(ethnic) 카자흐인, 즉 오랄만(oralman)이 자나오젠으로 유입되면서 도시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하는데, 도시 경제는 석유 생산 위주여서 실업률과 물가가 높은 상태였다(Satpayev & Umbetaliyeva 2015, 125). 이러한 지역적 조건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현지인·오랄만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석유·가스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 사이에서 긴장과 불만을 야기하는데, 임금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던 다른 산업 및 지역과도 차별된 자나오젠의 특징은, 파업과 시위가 외국인 회사가 아니라 과거에도 노동쟁의가 일어난 적이 있었던 국영 석유·가스 회사 카즈무나이가스(KazMunaiGaz) 자회사에서 시작되었고, 따라서 국가 지도부에게 그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다는 점이다(Marat 2016, 537; Satpayev & Umbetaliyeva 2015, 125-126).

자나오젠 사태는 다음과 같은 경과로 진행되었다. 2011년 5월 만기스타우 주 석유회사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외국인 노동자와의 동등한 권리, 독립 노조 활동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평화적 파업을 시작하자 석유회사들은 시위 가담 노동자 2,000명 이상을 해고하고, 이에 노동자들은 자나오젠 중앙광장에서 텐트 시위를 이어가던 중인 12월 16일 독립기념일을 맞아³⁸⁾ 경찰이 텐트를 철거하고 노동자들의 행진을 해산하려 하자 시위대가 도시의 여러 시설·건물을 파괴하거나 방화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Dash 2013, 195-196; Isaacs 2022, 103-104; Kudaibergenova & Laruelle 2022, 446; Marat 2016, 538; Satpayev & Umbetaliyeva 2015, 126). 2001년 엘리트의 반정부 정당 결성 시도처럼 2011년 자나오젠 노동자들의 항의시위도 현상적으로는 실패했지만,³⁹⁾ 이 사건은 ‘권위주의적 근대화’ 혹은 ‘복지국가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실패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고,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던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집단적 불만의 첫 번째 물결의 정점이었다(Ibadildin & Pisareva 2020, 109; Kudaibergenova & Laruelle 2022, 447).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자나오젠 시위를 강경 진압한 이후 만연해진 억압에 대한 공포와 대중의 탈정치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항의시위 형태의 3세대 정치

38) 이날은 공교롭게도 1986년 켈록산 사태가 일어난 날이기도 하였다.

39) 자나오젠 사태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한 6개월여에 걸친 민주적 항의시위가 당국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당국은 대중적 분노의 표출을 용납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Dash 2013, 200).

적 반대의 맥은 끊기지 않는다(Ibadildin & Pisareva 2020, 112). 항의시위는 체제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서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반대의 움직임 중에서 ‘체제 내부 결함(crack)’을 드러낸 2010년대의 주요 항의시위로는 2014년 2월 카자흐스탄 통화 텡게(tenge) 평가절하 반대 ‘검은 화요일’ 시위,⁴⁰⁾ 2016년 4-5월 토지개혁 반대시위,⁴¹⁾ 2019년 2월 아이들 5명이 희생된 아스타나(Astana) 화재 사건에 항의한 ‘어머니들의 시위’,⁴²⁾ 2019년 3월 19일 나자르바예프의 자진 사임 이후 시작된 ‘카자흐의 봄’ 시위를 들 수 있다(Ibadildin & Pisareva 2020, 112; Kudaibergenova & Laruelle 2022, 445-446). 2010년대 카자흐스탄의 주요 사건 혹은 결정이 기존 사회계약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실추시킴에 따라 국가-사회관계가 침체화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며 체제 혹은 정부에 도전하거나 반대하는 대중의 집단행동이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3세대 정치적 반대의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시위의 횟수나 보통 100명 이하였던 그 참여자 수가 아니라 시위의 의제와 유산이라고 논의되는데, 예를 들면 2014년 알마티의 ‘검은 화요일’ 시위는 제도적 약권의 조직적 도움을 받지 않은 대규모 시위의 선례를 만들어냈고, 2016년 토지법 반대시위는 정부의 약속 이행에 대한 대중의 높은 불신 수준을 보여주면서 나자르바예프와 엘리트의 우려를 자아내어 토지개혁 시행의 한시적 유보라는 제한적 양보 조치를 얻어내기도 하였다(Ibadildin & Pisareva 2020, 109; Isaacs 2022, 109; Kudaibergenova & Laruelle 2022, 446).

그리고 바로 이 3세대 정치적 반대의 일환으로서 가장 급진적인 내용과 방식

4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2009년 2월의 18% 평가절하 이후 5년 만인 2014년 2월 11일 또다시 텡게 화폐가 19% 평가절하된 이유로는 국가 경제의 석유 의존, 고물가, 은행 부문 부실 채권 문제 등이 지적되었는데, 이 조치의 피해자는 내수 중심 기업, 은행 예금자, 대출자, 이주 노동자 등으로 다양했고, 주요 수혜자는 채굴 산업 기업이었으며, 항의시위는 카자흐스탄의 금융 수도 알마티에서 일어났다(Brauer 2014; Lillis 2014).

41) 2016년 3월 말 국가경제부 장관이 2015년 11월 외국인의 농지 25년 임대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토지법에 따라 곧 농지 경매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중국인 투자자가 카자흐스탄 토지를 매입할 것이라거나 부패 때문에 부유한 이들만이 법 개정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대중의 우려와 분노가 일어나 주요 도시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된 대규모 항의시위가 벌어졌다(Abdurasulov 2016; Isaacs 2022, 107-108).

42) 2019년 2월 4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야간 근무를 위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1-13살 여자아이 5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여러 도시에서 다자녀 가족을 위한 공공주택, 저렴한 육아 시설, 아동수당 증액을 요구하고 자원 부족에서의 빈곤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어머니들의 시위’가 전개되었다(Najibullah 2019).

으로 전개되어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급 효과를 낳은 항의시위가 바로 2022년 소위 ‘피의 1월’이다. ‘규모와 속도 면에서 전례 없는’ 유혈 시위였던 ‘피의 1월’은, 정부가 엄청난 경제발전을 약속했지만 대중은 이 약속이 일상생활에서 실현되었다고 느끼지 못하여 형성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불만, 즉 ‘체제 내부 위기’가 그 동인이었다는 점에서(Kudaibergenova & Laruelle 2022, 441) 사회계약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 혹은 그 미이행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불만의 표출로서의 3세대 정치적 반대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피의 1월’ 발발의 근원은 2019년 3월 나자르바예프의 준비된, 그러나 정확한 시점이 예측되지 않는 못했던 자진 사임과 당시 상원의장이던 토카예프에 의한 권력승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자르바예프가 선택한 권력 이양 방식은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엘리트의 연속성을 의도한 ‘관리된 지명(managed designation)’ 이었고, 그 결과 권력승계 이후에도 나자르바예프가 막대한 권력을 보유함에 따라 나자르바예프 이후의 이행은 ‘이상하고 느리고 휘청대는(stumbling)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Blackmon 2021, 191; Ibadildin & Pisareva 2020, 112). 이러한 가운데 2022년 1월 2일 LPG 가격 급등에 항의하는 자나오젠에서의 시위로부터 ‘피의 1월’ 사태가 시작되는데, 시위가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번지면서 시위대가 외친 주요 구호가 2014년 알마티 ‘검은 화요일’ 시위에서 처음 터져 나왔던 “늑은이, 물러나라!(Shal, ket!)”였다는 점은(Kudaibergenova & Laruelle 2022, 447-448, 456),⁴³⁾ ‘피의 1월’이 2011년 자나오젠 사태와 2014년 ‘검은 화요일’ 시위로부터 이어지는 3세대 정치적 반대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시위임을 시사한다.⁴⁴⁾ 사태 진정 이후 나자르바예프를 비롯한 그의 가족 구성원 및 측근 다수에 대한 직위 해제가 단행되고 사법 절차가 개시되며 이들의 자산 몰수 혹은 국유화 과정이 잇따르는 등 탈나자르바예프화(de-Nazarbayevication) 작업과 ‘토카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되고 있지만(Górecki 2022, 3-4; Isaacs 2022, 118; Kudaibergenova & Laruelle 2022, 452-453; Kumenov

43) 또한 이 구호는, 시위대의 분노와 반대의 표적이 되었던 인물과 대상은 토카예프가 아니라 나자르바예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구축한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였음을, 시위의 목적은 카자흐스탄 정치·경제체제의 개혁이었음을 말해준다(Cornell 2022, 4; Kumenov 2022).

44) 다른 한편으로 1월 5일부터 알마티 및 남부 지역에서 특정 ‘기획자들(curators)’의 지시를 받아 분명한 계획에 따라 행동한 무장 폭력 집단이 치밀하게 조직되어 ‘피의 1월’ 초기의 평화적 시위를 가로챘다(hijack)는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해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Kudaibergenova & Laruelle 2022, 449-450, 453), ‘피의 1월’ 시위에 대한 성격과 의미 규정은 아직 확정적일 수 없다.

2022; Trubacheva 2023), 240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발생시킨 이 시위가 그 참여자들이 요구했던 새로운 체제 건설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존 권위주의 체제의 보수 혹은 재단장에 머물고 말지는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일이라고 하겠다.

2. 3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억압과 담론 공세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된 풀뿌리 항의시위 형태의 3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 보인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2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한 대응과 동일하다. 즉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3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압과 담론 공세로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3세대 정치적 반대는 2세대 정치적 반대와 달리 사회계약의 위기라는 달라진 조건에서 대중이라는 상이한 주체가 단순한 이익 추구 이상의 다양한 의제를 놓고 제기한 반대의 움직임이었고, 따라서 이러한 3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 정부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는 과거와 같을 수 없었다.

3세대 정치적 반대의 신호탄이자 그 상징적 사건이었던 2011년 자나오젠 사태는 무력 진압으로 막을 내리면서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3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 보인 고강도 억압의 대응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자나오젠 사태는 2011년 12월 16일에 느닷없이 발발한 국가폭력이 아니라 6개월 이상 파업과 시위가 진행되던 중에 정부가 가한 일련의 다양한 억압의 최종 국면이었다. 예를 들면, 2011년 5월 만기스타우 주에서 석유 노동자들이 연쇄 파업을 시작하자 지역 사법 당국은 이를 불법으로 판결했고, 지역 행정 당국은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인 석유회사들을 지지하여 노동자들의 비공식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러자 이에 힘입어 2011년 여름 석유회사 경영진은 시위에 가담한 노동자 2,000명 이상을 해고했고, 자나오젠 법원은 이들의 복직 요구를 기각하여 이들의 텐트 시위에 빌미를 제공했다(Isaacs 2022, 103-104; Satpayev & Umbetaliyeva 2015, 126). 또한 파업과 시위가 진행되는 중에 이미 노조 지도자와 활동가, 변호사에게 당국의 협박이 가해지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다(Isaacs 2022, 103). 즉 장기간에 걸친 자나오젠 사태에서 당국은 당근보다는 채찍을 꺼내든 것으로(Dash 2013, 193) 노동 운동에 대한 정부의 억압은 12월 16일 경찰의 발포 이전부터 지역 사법·행정 당국 및 기업의 결정과 행동의 형태로 계속되고 있었다. 국가 주력 산업인

석유 부문에서 노동자들이 조직한 파업과 시위는 단순한 경제적 불만의 표출을 넘어 기존 정치경제 질서·관행의 재편을 요구하고 국가 산업생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⁴⁵⁾ 체제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었기 때문에,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초기부터 노동 운동에 대한 대응 기조를 강경한 억압으로 설정한 것이고, 노동 분쟁이 장기화하자 당국이 착수한 유혈 진압은 그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이로써 자나오젠 사태는,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체제’를 구축한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Kudaibergenova & Laruelle 2022, 442), 나아가서는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가 결합된 체제 그 자체가 자신의 원활한 작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노동문제의 제기에 대해 드러낼 수 있는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안정과 번영의 수호자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위협한 2014년 텐게 평가절하 조치에 대한 항의에 나선 알마티 시민의 ‘검은 화요일’ 시위 또한 그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진압했고 시위 참여자들에게 벌금형과 금고형을 내렸다(Lillis 2014). 시위를 유발한 이슈가 체제 수준에서의 심각성을 내포한 것이었던 데다가 시위 과정에서 “늑은이, 물러나라!”라는 나자르바예프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까지 터져 나왔기 때문에, 정부는 시위에 대해 과도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강력한 억압으로 대응한 것이다. 2016년 토지개혁 반대시위가 일어나자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토지개혁 시행을 두 차례나 유보하는 드문 양보의 대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시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고압적으로 대응하여 수백 명의 시위자와 언론인을 체포한 뒤 벌금형을 부과했고 소셜미디어 서비스 차단을 통해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려는 시도를 사전 차단했다(Isaacs 2022, 108-109). 그러나 2016년 6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8%가 국가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데서 알 수 있듯이(Татиля 2016), 2000년대 말 이후 두 차례의 경제하락을 겪은 뒤 회복이 부진하던 카자흐스탄에서 사회계약의 효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적 반대에 대한 정부의 억압은 과거처럼 체제 안정에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대중의 불만과 요구가 사회적 수면 아래에서 잠복·누적되게 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한편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2019년 2월 비정치적인 ‘어머니들의 시위’에 대해

45) 2011년 말 카즈무나이가스의 보고에 따르면, 이 해 3분기 동안 ‘불법 쟁의 행위’가 미친 부정적 영향 때문에 이 기업의 원유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고, 나자르바예프의 둘째 사위이자 당시 카자흐스탄 국부 펀드 삼룩-카지나(Samruk-Kazyna) 의장이었던 쿨리바예프(Timur Kulibayev)의 발언에 따르면, 이 해 파업은 약 3억6,500만 달러로 추산되는 ‘막대한 손해’를 국고에 입혔다(Lillis 2011).

서는 억압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임대 지원 계획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나자르바예프는 국민 생활수준 개선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부를 해산하기까지 하였다(Aleksandrov et al. 2019). 이 시위는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를 결합한 국가가 국민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시켜줌으로써 한 달 뒤 전격 발표된 나자르바예프의 자신 사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lackmon 2021, 190-191).

나자르바예프가 사임한 직후 특히 청년층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공적 공간이 열림에 따라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풀뿌리 ‘카자흐의 봄’ 향의시위가 시작되지만, 이에 대해 새 정부가 택한 주요한 대응 방식 중의 하나는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구태의연한 억압이었다(Isaacs 2022, 109-113; Lillis 2019). 그리고 2022년 매우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사회경제적·정치적 요구를 폭발적으로 분출한 ‘피의 1월’ 사태에 대한 토카예프 정부의 대응 기조 역시 ‘경고 없이 사살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이 단적으로 말해주듯이(Isaacs 2022, 115-117; Kudaibergenova & Laruelle 2022, 448) 억압이었다. 토카예프 정부는 출범하면서 정치개혁을 약속하고 ‘듣는 국가(listening state)’를 표방했지만(Isaacs 2022, 98), 이러한 공언(公言)이 무색하게도 ‘피의 1월’의 발발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약속 준수의 의지 혹은 능력의 결여를 보여주었다. ‘피의 1월’을 수습한 뒤 2022년 11월 조기 대선에서 토카예프가 81.3%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하고, 2023년 3월 총선에서 여당 아مانة트(Amanat, ‘언약’)가 하원 전체 98석 가운데 6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어 토카예프가 약속한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피의 1월’ 이후 대중의 지지에 대한 확신을 상실한 토카예프 정부는 풀뿌리 차원에서 소규모로 제기되는 정치적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까지 여전히 체포, 구금, 벌금 등의 억압으로 대응하고 있다(Kumenov 2023).

나자르바예프 정부와 토카예프 정부는, 1·2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서와 달리 3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서는 효과적일 수 없게 되어 대중 요법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게 된 억압의 대응을 연속해서 취할 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담론 공세를 이어나가기도 하는데, 그 실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나오젠 사태 시 국영 언론은 석유업 종사자들(oilmen)의 ‘탐욕을 노출시킴’으로써 파업 참여자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보도를 내보냈고, 당국은 영국에 거주하던 아블라조프가 반정부 언론 및 정당 지원을 통해 원격으로 무질서를 계획하고 분쟁을 선동했다면서 그에게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오랄만이 대규모 귀환하여 불안과 동요가 야기되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Isaacs 2022, 106-107;

Lewis 2016, 431; Satpayev & Umbetaliyeva 2015, 127-128). 2011년 12월 22일 처참한 자나오젠 사태 현장을 방문하여 아연실색한 나자르바예프도 파업 참여자들의 동기 무시와 강압적인 행정 조치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사태 그 자체는 매수되거나 술에 취한 범법자들이 카자흐스탄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해 조직한 폭동이었다고 비난함으로써(Dash 2013, 197-198) 부정적 담론 공세에 직접 가담했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사태가 진정된 이후인 2011년 12월 말 유명 블로거 6명의 자나오젠 방문을 조직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회정치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사태의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 경제적 원인을 부각시키는 게시물을 올리게 하는 ‘교묘한 방식(subtle way)’의 담론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Lewis 2016, 427-433).

2016년 토지개혁 반대시위에 대해서도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예의 담론 공세로 대응했는데, 검찰은 시위대가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여러 언론은 외부 세력이 유혈사태를 선동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보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Isaacs 2022, 108-109; Lillis 2016). 2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서 그러했듯이 3세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서도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메시지, 즉 반대 세력이 문제시한 체제 내부 결함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문제화하고 탓하는, 즉 문제를 제기한 반대세력을 체제 외부 세력으로 타자화하거나 체제 위협 세력으로 낙인찍는 담론을 구성·유포한 것이다.

나자르바예프가 준비·실행한 ‘관리된 지명’에 의한 권력 이양으로 출범한 토카예프 정부에게도(Blackmon 2021)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담론 공세는 정치적 반대에 대한 대응 기조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피의 1월’ 항의시위에 대한 토카예프 정부의 공식 담론은, 경제문제에 대한 평화적 시위의 적법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테러리스트 20,000명’이 조직한 폭력적 ‘공격’은 ‘실패한 쿠데타’ 시도였다는 것이다(Cornell 2022, 7-8; Kudaibergenova & Laruelle 2022, 442, 456). 정당한 대중시위가 폭력과 결부되자 그 과정과 원인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정부는 일단 이를 부정적으로 프레임화한 담론을 구성·유포한 것인데, 사상자 수천 명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독립 카자흐스탄 역사의 전환점에 해당”하기도 하는(Kudaibergenova & Laruelle 2022, 455) 이 사태가 진정된 이후로 이미 1년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기에 정부가 발표한 사태에 관한 음모론적 담론에 근거를 부여하여 그 신뢰성을 입증해줄 공식 진상 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V. 결 론

카자흐스탄에서 정치적 반대는 소비에트 말기부터 1990년대 초반 무렵 처음으로 출현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 1세대 정치적 반대는 인텔리가 민족·환경 이슈를 놓고 결성한 사회운동의 형태와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이에 대한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대응은 억압과 포섭이었으며, 체제전환기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의 권위주의 체제 구축 진행은 이러한 대응의 효과를 담보해준 조건과 요인이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 차상위 엘리트가 이익 추구 정당을 결성하여 체제 개혁을 요구하는 형태와 방식으로 제기된 2세대 정치적 반대는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화한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강력한 억압과 담론 공세에 의해 와해되었는데, 이는 정부와 대중 간의 사회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던 조건에서 정치적 반대가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 이전과는 상이한 주체와 다양한 주장의 3세대 정치적 반대가 대두되는데, 이는 대중의 항의시위 형태로 전개되었고, 이에 대해 나자르바예프와 토카예프 정부는 억압과 담론 공세라는 과거의 대응을 답습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뒤이은 저성장으로 인해 기존 사회계약의 정당성이 훼손된 조건에서 이러한 진부한 대응은 이전처럼 효과적일 수 없었고, 이에 3세대 정치적 반대의 물결은 2022년 1월 대규모 유혈사태로까지 이어졌으며, 사태 진정 이후 현재 토카예프 정부는 권위주의 체제 유지와 개혁의 기로에 서 있다.

이처럼 소비에트 말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정치적 반대가 다양한 양상으로 형성되어 활동·변화하고 이에 반응하여 정부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정치적 반대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의 의사 반영이 형식적 선거에 의해 왜곡되거나 제한되기 마련인 권위주의 체제에서라도 국가-사회관계는 정치적 반대의 성과 혹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에서 국가-사회관계는 정부와 대중 간에 맺어진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인 사회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국가-사회관계의 양상은 정치적 반대의 활동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조건으로 작용했다. 사회계약이 온전히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대중이 정부의 '경제 우선' 약속 준수 여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1990년대 및 정부가 제공한 경제성장의 혜택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가 교환되면서 사회계약

이 작동했던 2000년대 카자흐스탄의 국가-사회관계 조건에서 1·2세대 정치적 반대는 자신의 요구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와 달리 기존의 사회계약에 대한 믿음이 훼손된 2010년대 카자흐스탄의 국가-사회관계 조건에서는 기층 대중이 직접 정치적 반대 행동에 나섰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3세대 정치적 반대의 움직임은 1·2세대 정치적 반대 운동이 거두지 못한, 탈나자르바예프화를 통한 권위주의 체제의 근본적 변화라는 결과물을 얻어낼 계기 혹은 기회의 가능성을 여는 데 성공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반대는 물론 정부의 대응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그 활동과 결과가 결정되지만, 동시에 정치적 반대의 성과 혹은 성패는 정부의 대응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관계 혹은 ‘사회’의 작용에 의해서도 정해지는 삼차 함수 문제로 풀이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적 반대에 대해 권위주의 체제가 보이는 주요한 대응 중의 하나인 억압의 효율성 또한 어떠한 국가-사회관계 맥락 속에서 정부가 억압을 실행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권위주의 체제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은 강제(coercion)이고(Schatz & Maltseva 2012, 46),⁴⁶⁾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화한 나자르바예프 정부 역시 비타협적인 정치적 반대에 대해서는 적대감과 공포를 드러내며 강력한 억압으로 대응했다. 그렇지만 노골적인 강제의 사용이 빈번한 경성 권위주의 체제에서와 달리, 선거나 야당 등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을 갖춘 다른 연성 권위주의 체제에서처럼 나자르바예프 정부도 안정적 통치와 체제 유지를 위해 억압에만 의존하지는 않아서 비록 억압이 정치적 반대에 대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빈번히 꺼내든 대응 카드이기는 했지만, 카자흐스탄에서 “강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일상적인 정치의 주요소는 아니”었다(Lewis 2016, 421-422; Schatz 2009, 206, 208)⁴⁷⁾. 이처럼 억압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체제 수호를 위해 취한 유일한 혹은 상시적인 정치적 행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카자흐스탄 정부가 시대를 관통하여 정치적 반대에 대응하는 일관된 방식이기는 한데, 카자흐스탄에서 정부와 대중 사이의 사회계약에 대한

46)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 어느 시점에 억압에 의존하지 않고 통치한 권위주의 체제는 없다.”(Frantz 2018, 105)

47) 경성 권위주의 체제에서보다 연성 권위주의 체제에서 강제의 사용이 제한적인 이유는 첫째, 연성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자들은 국가폭력이 야기할 수 있는 국제적 비판을 피하려 하고, 둘째, 특히 체제가 공고화되지 않았을 때 공공연한 국가의 강제는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셋째, 적어도 일부 연성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자들은 이념적으로나 현범상으로 자신들이 경성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 지도자들과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논의된다(Schatz & Maltseva 2012, 46).

기대 혹은 신뢰가 존재하여 국가-사회관계가 침체화되지 않았던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 강력한 억압으로 대응하더라도 이것이 대중의 반발이나 저항을 유발하지 않았고, 따라서 권위주의 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국가-사회관계가 악화된 2010년대에는 정치적 반대에 대한 정부의 억압으로 대중의 다양해진 요구나 불만이 해소·억제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은 결국 2022년 1월 대규모 폭력·유혈사태 발발의 빌미가 되었다. 억압은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과 재생산을 위한 만능열쇠가 아니어서 국가-사회관계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정치적 반대에 대한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은 정치적 반대의 위축 혹은 실패를 야기하여 체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도, 반대로 정치적 반대의 격화 및 체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영문 자료

- Abdurasulov, Abduljalil. 2016. "Kazakhstan's Land Reform Protests Explained." *BBC*, April 28, <https://www.bbc.com/news/world-asia-36163103> (accessed 05 April 2023).
- Aleksandrov, Aleksei, Svetlana Glushkova & Ganizat Ospanov. 2019. "Kazakh Mothers: Proving A Force For Change." *Current Time*, February 21, <https://en.currenttime.tv/a/kazakhstan-mothers-protests/29880082.html> (accessed 05 April 2023).
- Blackmon, Pamela. 2021. "After Karimov and Nazarbayev: Change in Uzbekistan and Kazakhstan?" *Central Asian Survey* 40(2), 179-196.
- Bowyer, Anthony Clive. 2008. "Parliament and Political Parties in Kazakhstan." *Silk Road Paper*.
- Brack, Nathalie & Sharon Weinblum. 2011. "'Political Opposition': Towards a Renewed Research Agenda." *Interdisciplinary Political Studies* 1(1), 69-79.
- Brauer, Birgit. 2014. "The Cost of Black Tuesday for Kazakhstan." *CACI Analyst*, March 19, <http://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2934-the-cost-of-black-tuesday-for-kazakhstan.html> (accessed 05 April 2023).
- Cirincione, Joseph, Jon B. Wolfsthal & Miriam Rajkumar. 2005. *Deadly Arsenals: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Threats*.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Cornell, Svante E. 2022. "Learning from Kazakhstan's January Crisis." *CACI Analyst*, April 18, <https://www.cacianalyst.org/resources/pdf/220418-FT-Kazakhstan.pdf> (accessed 05 April 2023).
- Cummings, Sally N. 1999. "The Political Elite in Kazakhstan since Independence (1991-1998): Origins, Structure and Policies." Ph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 _____. 2002. "Kazakhstan: An Uneasy Relationship-Power and Authority in the Nazarbaev Regime." in *Power and Change in Central Asia*, edited by Sally N. Cummings, 59-73.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5. *Kazakhstan: Power and the Elite*. London and New York: I.B.Tauris.
- Dahl, Robert A. 1966. "Preface." in *Political Oppositions in Western Democracies*, edited by Robert A. Dahl, xi-xix.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Dash, P. L. 2013. "Zhanaozen and Beyond." in *The State in Eurasia: Local and Global Arenas*, edited by Anita Sengupta and Suchandana Chatterjee, 193-208. Kolkata: Maulana Abul Kalam Azad Institute of Asian Studies.
- Dave, Bhavna. 2007. *Kazakhstan: Ethnicity, Language and Pow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Frantz, Erica. 2018. *Authoritarianism: What Everyone Needs to Kno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órecki, Wojciech. 2022. "Tokayev's *Perestroika*. Kazakhstan in the Face of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OSW Commentary No. 456, https://www.osw.waw.pl/sites/default/files/OSW_Commentary_456.pdf (accessed 05 April 2023).
- Hiro, Dilip. 2009. *Inside Central Asia: A Political and Cultural History of Uzbekistan, Turkmenistan,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ey, and Iran*. New York and London: Overlook Duckworth.
- Ibadildin, Nygmet & Dinara Pisareva. 2020. "Central Asia in Transition: Social Contract Transformation in Nazarbayev and Post-Nazarbayev Kazakhstan." in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in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Member States*, edited by Anja Mihr, 101-116. Cham: Springer.
- Isaacs, Rico. 2022. *Political Opposition in Authoritarianism: Exit, Voice and Loyalty in Kazakhstan*. Cham: Palgrave Macmillan.
- Jones, Nathan Paul. 2010. "'Assembling' a Civic Nation in Kazakhstan: The Nation-Building Role of the Assembly of the Peoples of Kazakhstan." *Caucasi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4(2), 159-168.
- Junisbai, Barbara. 2010. "A Tale of Two Kazakhstans: Sources of Political Cleavage and Conflict in the Post-Soviet Period." *Europe-Asia Studies*

62(2), 235-269.

- Junisbai, Barbara & Azamat Junisbai. 2005. "The Democratic Choice of Kazakhstan: A Case Study in Economic Liberalization, Intraelite Cleavage, and Political Opposition." *Demokratizatsiya* 13(3), 373-392.
- Kotz, David M. & Fred Weir. 2007. *Russia's Path from Gorbachev to Putin: The Demise of the Soviet System and the New Rus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udaibergenova, Diana T. & Marlene Laruelle. 2022. "Making Sense of the January 2022 Protests in Kazakhstan: Falling Legitimacy, Culture of Protests, and Elite Readjustments." *Post-Soviet Affairs* 38(6), 441-459.
- Kumenov, Almaz. 2022. "Kazakhstan: De-Nazarbayevification Picks Up Steam, But Is It Just for Show?" *Eurasianet*, January 20, <https://eurasianet.org/kazakhstan-de-nazarbayevification-picks-up-steam-but-is-it-just-for-show> (accessed 05 April 2023).
- _____. 2023. "New Kazakhstan, Old Methods: No Respite for Beleaguered Opposition." *Eurasianet*, May 25, <https://eurasianet.org/new-kazakhstan-old-methods-no-respite-for-beleaguered-opposition> (accessed 02 June 2023).
- Laruelle, Marlene. 2021. *Central Peripheries: Nationhood in Central Asia*. London: UCL Press.
- Lewis, David. 2016. "Blogging Zhanaozen: Hegemonic Discourse and Authoritarian Resilience in Kazakhstan." *Central Asian Survey* 35(3), 421-438.
- Lillis, Joanna. 2011. "Kazakhstan: Labor Dispute Dragging Energy Production Down." *Eurasianet*, October 13, <https://eurasianet.org/kazakhstan-labor-dispute-dragging-energy-production-down> (accessed 05 April 2023).
- _____. 2014. "Kazakhstan: Counting the Costs of Devaluation." *Eurasianet*, February 27, <https://eurasianet.org/kazakhstan-counting-the-costs-of-devaluation> (accessed 05 April 2023).
- _____. 2016. "Kazakhstan: Mud-Slinging at Protesters Highlights Apparent Media Double Standard." *Eurasianet*, June 1, <https://eurasianet.org/kazakhstan-mud-slinging-protesters-highlights-apparent-media-double-standards> (accessed 05 April 2023).

- _____. 2019. "Kazakhstan: Tokayev Reign Begins with Arrests." *Eurasianet*, March 22, <https://eurasianet.org/kazakhstan-tokayev-reign-begins-with-arrests> (accessed 05 April 2023).
- Linz, Juan J. 2000.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 Marat, Erica. 2016. "Post-Violence Regime Survival and Expansion in Kazakhstan and Tajikistan." *Central Asian Survey* 35(4), 531-548.
- McAdam, Doug. 1996. "Conceptual Origins, Current Problems, Future Direc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edited by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23-4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Glinchey, Eric. 2011. *Chaos, Violence, and Dynasty: Politics and Islam in Central Asia*.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Najibullah, Farangis. 2019. "Tragic Fire in Astana Gives Kazakh Mothers' Protests New Momentum." *RFE/RL*, February 12, <https://www.rferl.org/a/tragic-fire-in-astana-gives-kazakh-mothers-protests-new-momentum/29765930.html> (accessed 05 April 2023).
- Oka, Natsuko. 2007. "Managing Ethnicity under Authoritarian Rule: Transborder Nationalisms in Post-Soviet Kazakhstan." Interim Report 2006.
- Olcott, Martha Brill. 1997. "Democratization and the Growth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Kazakhstan." in *Conflict, Cleavage, and Change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edited by Karen Dawisha and Bruce Parrott, 201-2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Kazakhstan: Unfulfilled Promise*.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Ostrowski, Wojciech. 2009. "The Legacy of the 'Coloured Revolutions': The Case of Kazakhstan."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25(2-3), 347-368.
- Peyrouse, Sébastien. 2007. "Nationhood and the Minority Question in Central Asia. The Russians in Kazakhstan." *Europe-Asia Studies* 59(3), 481-501.

- Pomfret, Richard. 2005. "Kazakhstan's Economy since Independence: Does the Oil Boom Offer a Second Ch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urope-Asia Studies* 57(6), 859-876.
- _____. 2019. *The Central Asian Economi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Paving a New Silk Road*.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tpayev, Dossym & Tolganay Umbetaliyeva. 2015. "The Protests in Zhanaozen and the Kazakh Oil Sector: Conflicting Interests in a Rentier Stat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6(2), 122-129.
- Schatz, Edward A. D. 1999. "Notes on the 'Dog That Didn't Bark': Eco-Internationalism in Late Soviet Kazakhstan." *Ethnic and Racial Studies* 22(1), 136-161.
- _____. 2009. "The Soft Authoritarian Tool Kit: Agenda-Setting Power in Kazakhstan and Kyrgyzstan." *Comparative Politics* 41(2), 203-222.
- Schatz, Edward & Elena Maltseva. 2012. "Kazakhstan's Authoritarian 'Persuasion'." *Post-Soviet Affairs* 28(1), 45-65.
- Sindelar, Daisy. 2013. "How Far Will Nazarbaev Go To Take Down Mukhtar Ablyazov?" *RFE/RL*, June 7, <https://www.rferl.org/a/kazakhstan-nazarbaev-ablyazov/25010488.html> (accessed 05 April 2023).
- Sorbello, Paolo. 2021. "Kazakhstan's Poet, Political Dissident Aron Atabek Dies." *The Diplomat*, November 30, <https://thediplomat.com/2021/11/kazakhstans-poet-political-dissident-aron-atabek-dies/> (accessed 05 April 2023).
- Trubacheva, Tatiana. 2023. "How New Kazakhstan Nationalises Assets of Old Kazakhstan." *CABAR*, February 24, <https://cabar.asia/en/how-new-kazakhstan-nationalises-assets-of-old-kazakhstan> (accessed 05 April 2023).

러시아어 자료

- 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2010.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вероисповедание и владения языка*

м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Итоги Нац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2009 год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Астана: 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Аккулы, Султан-Хан. 2009. “18 лет спустя после первых выборов президента Хасен Кожа-Ахмет остался просто диссидентом.” *Радио Азаттык*, December 2, https://rus.azattyq.org/a/kazakhstan_first_president_election_kozhakhmetov/1892318.html (accessed 05 April 2023).

Бюро национа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и Агентства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планированию и реформам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22. *Итоги Нац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2021 год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Нур-Султан: Бюро национа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и Агентства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планированию и реформам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Татия, Кенже. 2016. “Как оценивают граждане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стране?” *Central Asia Monitor*, July 29, <https://camonitor.kz/24619-kak-ocenivayut-grazhdane-obschestvenno-politicheskuyu-situaciyu-v-strane.html> (accessed 05 April 2023).

Abstract

Political Opposition and Government's Responses in Kazakhstan's Authoritarian Regime

Tae Yon K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give a diachronic analysis of the processes in which political opposition and government's responses towards it have unfolded in Kazakhstan's authoritarian regime. The first generation of political opposition in Kazakhstan was the social movements that were organized on the initiative of intelligentsia from the late Soviet period to the early 1990s and raised national and environmental issues. Nazarbayev's government responded to this type of political opposition with repression and co-optation. The second generation of political opposition in the form of a profit-seeking party arose from the late 1990s to the early and mid 2000s. The responses of Nazarbayev's government towards it were strong repression and offensive discourse. Since 2010s the third generation of political opposition in the new form of a mass protest has been rising up and Kazakhstan's government has been responding to it with repression and offensive discourse as before. But the same way of responses as before in different conditions of state-society relations has not achieved the effect of stabilization of the regime.

Key Words: Kazakhstan, Authoritarian Regime, Political Opposition, State-Society Relations, State Repression